인사

◆**농림축산식품부(22.12.09)** ◇과장급 전보 △김상돈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양운식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농촌진흥청(22.12.10)** ◇고위공무원 전보 △조용빈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강민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우리지역대리점 한국구보다 구미선산 대리점

"대형기종 찾는 소비자들 늘어난다"

지난해 대비 매출 130% 증가… 올해 매출 신기록

이재학 기자 jaehakxx@kamnews.co.kr

이병철 대표

대리점 전경.

한국구보다 구미·선산 대리점((주)엘림, 대표 이병철)이 지난해 대비 매출 130% 증가하며, 올해 매출 신기록을 또다시 기록했다.

이병철 대표는 "갈수록 농경지 단위가 늘어남에 따라 트랙터의 판매 대수는 줄어들지만, 대형기종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콤바인에 대해서는 "콤바인 역시 6, 7조 기종의 시장이 약 50% 이상이 넘어가고 있다"며 "젊은 층들의 유입이 확실히 늘었으며, 그들은 수확시간을 짧게 하는 것을 니즈로 하기 때문에 기존 5조 콤바인으로는 그들의 니즈를 채울 수가 없어 콤바인 역시 대형기종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 7조의 사용은 작업량이 많은 곳에서만 활용되는 기종이라고 인식됐다면, 요즘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종 선택의 변화만 보더라도 최근 농업 방식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트랙터의 경우 약 5년 전에는 70마력이 주였지만, 최근 70마력대 찾는 소비자가 극히 줄었으며, 대부분 100마력대 기종을 찾는 소비층이 늘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는 확실히 국내 농업 환경이 서서히 규모화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는 가을 장사서 트랙터의 대수가 예상치보다 덜 판매된 것에 대해 최근 철옹성 같았던 소값의 하락과, 수도작서의 쌀값 하락의 원인이 판매시장 위축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의 시장을 어둡게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농기계신문 (우)08506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더스카이밸리 1차 811호

발행·편집/사장	이성열	구독료 : 월 7,000원 / 1년(선납) 70,000원	대표전화	02)584-2315~7
			광고·구독문의	02)584-2316
편집국장 대행	이재학	입금계좌 (예금주 : 이성열) 농협 067-12-209133	팩스	(02)584-2312
인쇄인	김준배	www.kamnews.co.kr E-mail : postmaster@kamnews.co.kr		

1999년 4월 15일 창간 / 1998년 12월 17일 등록 / 등록번호 다-05473 / 사업자번호 106-02-64704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스마트데이터 생태계 조성 혁신성장 꾀해

기초산업·미래산업 확대·적용 방안 활발히 모색
바이오·식품제조 등 경북 신산업 분야 제공 확대

이재학 기자 jaehakxx@kamnews.co.kr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 노하우가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로의 접목·확산이 추진된다.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스마트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기초산업은 물론 미래산업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는 것이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네이버클라우드가 주관사이며 (사)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등 16곳의 기관 및 기업이 빅데이터센터에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팜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농업인, 공공기관·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빅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원장 한민우)은 지난달 30일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형뉴딜추진단(단장 민종언)과 경북지역 주력산업의 스마트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지연은 스마트팜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을 추진하며 확보한 기술 노하우를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경북의 주력산업 스마트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바이오·식품제조 등 경북의 신산업 분야에도 지식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지연은 이달 1일에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찬식),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스마트팜센터장 김현태)과 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 확산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한지연은 농업인 맞춤형 빅데이터, AI 모델 등 혁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의 데이터 분석, AI학습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높은 브랜드파워를 가진 데이터 유통채널을 가동하는 등 지속적인 차세대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사)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 R&D정책본부 김우형 본부장(사진 왼쪽)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정찬식 원장이 지난 1일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농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지연과 경남기술원,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확산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구현하고, 나아가 디지털 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한민우 한지연 원장은 "스마트팜 빅데이터 사업으로 확보한 기술 노하우를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형뉴딜추진단과 함께 지역의 제조업과 신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 데이터 구축·활용 등 범정부 차원 디지털전환 정책의 혁신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마트팜 국가표준 확산지원 성과보고회

농진원 '스마트팜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 국내 성공적 안착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지난 2일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산업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표준화에 대한 제도홍보와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알려 표준규격이 적용된 제품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규 국가표준인 양액기·중가축(돼지)사양관리기기에 대한 표준 확대와 2023년 사업추진 체계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우수 기자재에 대한 전시도 이뤄졌다.

한편 스마트팜 ICT 기자재는 각기 다른 성능, 규격 등으로 제품의 호환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표준 확산사업을 통해 점차 개선이 진행 중이다.

농진원은 2020년부터 표준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시설원예·축산 분야의 기술컨설팅 및 제품개선 비용을 지원했다.

농기계 오래 쓰려면 겨울철 관리 필수

건조한 실내 보관하고 기종별 유의사항 잘 지켜 보관

본격 겨울철을 맞이해 농기계 보관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겨울철에 오랫동안 농기계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농기계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한 다음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를 보관할 때는 농기계 각 회전 부위나 절단 부위, 벨트, 체인에 낀 잡초나 볏짚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그대로 두면 쥐가 배선을 갉아 농기계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볼트, 너트의 잠김 상태를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서 보관한다.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는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냉각수는 얼지 않도록 라디에이터에 부동액을 섞은 후 규정량에 맞춰 넣고, 냉각수를 빼서 보관할 때는 라디에이터에 냉각수가 없다는 표시를 해 둔다.

전북 부안에서 벼농사를 짓는 최대열 농업인은 "영농철에 농기계를 고장 없이 쓰려면 겨울철 보관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갑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과장은 "겨울철 농기계 관리와 보관을 잘하면 농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훨씬 효과가 크다"고 전했다.